



'영산강 강살리기 사업' 승촌보 공사 구간 시공사가 2일 집중호우에 대비해 중장비를 동원, 공사 현장에 쌓아둔 준설토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산강 준설토 큰물 질까 '조마조마'

장마 시작...오니토 유출 환경오염 우려

총 435만m³ 준설...공사 현장 처리 비상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영산 강 준설토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일 밤부터 3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것에 대비, 2일 오전부터 영산강 주변 적치장에 쌓아둔 준설토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등 홍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농민과 환경단체들은 영산 강 주변의 퇴적 오니인 준설토가 집 중 호우로 흘러 나릴 경우 인근 강으로 스며들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특히 강이 오염되면 농경지 등에 피해를 줄 수 있 다며 우려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은 장마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영산 강 강살리기 사업' 공사 구간 적치장의 준설토를 대부분 외부로 반출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과 환경단체들은 영산 강 주변의 퇴적 오니인 준설토가 집 중 호우로 흘러 나릴 경우 인근 강으로 스며들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양은 6공구 200만m³ 등 총 435만m³에 이른다. 현장에서 발생한 준설토는 인근 적치장에 별도 보관하거나 준설 즉시 외부 지역 6곳으로 반출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청은 이달 들어 장마가 본격화되자 적치장의 흙을 대부분 외부로 옮긴 상태며, 일부 준설토가 남아있는 곳은 중장비를 동원해 흘러 내리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비가 내리더라도 준설토로 인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은 없다는 게 익산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준설토는 수십 년 동안 썩은 오염된 흙이기 때문에 비가 내릴 경우 환경 오염 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이 오염되고, 생태계 파괴 또한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영산강 승촌보 공사 현장 일대는 보 공사 당시 전체 10개 공구 가운데 준설토가 가장 많고, 강 주변에 성토용으로 사용된 면적도 넓어 사실상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농민들도 준설공사로 인해 이미 영산강이 흙탕물로 변해버린데다 최근 폭우가 내리면서 공사현장에 있던 흙이 빗물과 섞여 강으로 흘러들었다며 걱정하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6공구인 승촌보 공사 관계자는 "장마에 대비해 지난 달 30일 기물막이 둑을 해체하고 현장에 남아있던 준설토도 모두 광주시 서구 용두동 적치장으로 옮겨 놓았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흙비탈에

도 포장을 씌우고 높이 고정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산강 승촌보는 최근 장마로 공사를 일부 중단한 상태이며,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9~10월께 다시 준설 등 본격적인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지자체 뒷돈 실태 ▶ 3면 '물 만난' 장마·제습용품 ▶ 4면 광산구 쌍암 공원 탐방 ▶ 5면 Books ▶ 8·9면 독자와 함께 ▶ 13면 월드컵 남미 축구 힘 ▶ 14면

허정무 "대표팀 떠나겠다"

연임 포기...정해성·홍명보·김학범 후임 거론

진도 출신으로 월드컵 출전 사상 처음 한국 축구를 원정 16강에 올려놓은 허정무(55) 감독이 2년6개월 동안 잡았던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놨다.

허정무 감독은 2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가 후임 감독 인선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찍 결심하게 됐다. 차기 감독 인선에 서 둘러나겠다. 당분간 재충전 시간을 가지면서 공부를 할 생각"이라며 대표팀 사령탑 재계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지난 2007년 12월 외국인 지도자 시대를 마감하고 대표팀 사령탑에 취임했던 허정무 감독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종료와 함께 계약 기간이 끝났고 연임 포기로 2년6개월 여의 감독직을 마감했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허정무 감독은 축구 협회로부터 연임 제의를 받아왔다.

허 감독의 사퇴 결심에는 대표팀 대표팀을 지휘하는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가족들의 연임 반대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 감독은 우루과이와 16강전에서 1-2로 진 뒤 "다음 월드컵에서 한국

이 좋은 성적을 내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던 대로 유소년 축구 육성이나 프로축구 K-리그 복귀 등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허 감독은 "축구협회가 후임 감독 인선하는데 부담을 덜어주려고 일찍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축구는 체력·정신·조직적인 면에서는 뛰어지지 않는다. 가장 부족한 게 기술적인 부분이다. 볼 터치와 패스능력, 순간 상황 판단 능력, 영리한 플레이 등을 기초부터 잘해야 한다. 이런 면은 우리 축구인 모두가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구협회는 허정무 감독의 재계약 포기에 따라 이르면 7일 기술위원회를 회의를 열어 후임 사령탑 인선 작업에 들어간다.

한편 대표팀 수석코치로 허정무 감독을 보좌했던 정해성 코치와 지난해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의 8강 진출을 이끌었던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 김학범 전 성남 일화 감독 등이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의외의 외국인 감독이 대표팀을 지휘할 가능성도 있다.

/김예울기자 wool@·연합뉴스

천동·번개 동반 국지성 호우

광주·전남 20mm~80mm...오후부터 그쳐

주춠했던 장마전선이 다시 발달하면서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천동·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차차 개겠다"고 예보했다. 강수량은 20mm~80mm 이상으로 예상된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3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장마전선이 계속 남하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은 당분간 천동·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남해안 지방에 8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흙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2010 월드리그 국제남자 배구대회

